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민족민주혁명론'이란 무엇인가?

신식국독자

남한의 민족민주혁명은 미·일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예측적 축적구조로 인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의 전면적 발전에 장애로 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제거하여,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진전의 길을 여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

따라서 당면혁명의 최대의 과제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의 정치노선 수호를 위한 폭력기제인 반동권력을 타도하고, 미·일제국주의를 축출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남한의 반동권력은 예측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반동부르주아의 지배도구이다. 그러나 여기서 프롤레타리아가 당면혁명에 전위투사로 나서게 되는 동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의 견해가 비판되어야 할 것 같다.

남한 프롤레타리아가 반동적 과소권력과 대립하게 되는 이유를 토대에 있어서의 독점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대립의 직접적 반영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 시기 우리들의 전술적 임무에 대하여(5.30)」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청 중소자본가에 대한 경제투쟁을 조직할 경우 우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초점을 하청을 준 매관자본가에게 맞추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비독점자본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는 투쟁의 예봉을 독점자본에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독점자본에 하청계열화된 중소자본이나, 기타 영세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 중 일부분을 다시 독점자본에 수탈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특히 남한 프롤레타리아에 있어서 고통의 원인이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기형적 사회구조로 인하여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 생각할 때, 독점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는 모순이 따로 있고, 또 중소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따로 있는 듯이 보이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독점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의 대립은 중소자본가 또는 영세자본가들보다 독점자본가가 더 나쁜 놈들임을 자각할 수도 없으며 자각시킬 수도 없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다른 무엇도 아닌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는 것임을 이해시키고,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생활의 불안정과 빈곤과 굴욕의 명에는 제거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 일반과의 전쟁 중에서도 특히 반동부르주아의 권력인, 현 반동권력의 타도에 힘을 집중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독점자본의 초과착취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적 이유라기보다는, 현재의 반동적 국가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보장하는 도구로 되고 있고, 또 노동자계급의 의식적·조직적 투쟁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직접적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투쟁에서도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중소자본가에 대한 요구를 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싸워나가야 하며, 정치투쟁에 있어서도 부르주아의 국가기제를 남겨두려는 일체의 시도를 반대하고, 낡은 국가기제의 분쇄, 인민무장에 의한 대체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태도도 바로 이런 것이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가 국가권력을 장악한 경우 부르주아적 국가기제의 완전한 분쇄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프롤레타리아는 이들이 권력을 가로채는 것을 반대한다.

물론 이들이 권력을 잡지 않은 동안은 프롤레타리아에게 이들이 직접적인 적이 되기보다는 무력화 대상이 된다. 그들에게 권력이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프롤레타리아의 지도를 전체 민중에게까지 관철 시키는 것이 주요한 태도이다.

그러나 만약 자유주의적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프롤레타리아는 즉각 그들과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의 일관된 목표는 부르주아 지배질서의 종식이요, 사회주의혁명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 프롤레타리아가 전면적인 사회주의혁명을 바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물질적·정치적 조건이 미비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만 마련된다면, 즉각 사회주의혁명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에 냉철히 눈뜨고 있어야 하며, 중소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라 할지라도 '독점자본가가 더욱더 많은 착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전면적 철폐를 위해서는 먼저 계급투쟁을 가로막는 미·일제국주의와 반동권력의 지배를 끝장내야 한다는 점에서, 민족민주혁명투쟁의 전위투사로 나서는 것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프롤레타리아에게 '민족민주적 계급의식'이 따로 있고,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초지일관 자본가계급과 적대적인 위치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계급적 정치의식을 가질 때에만 민족민주혁명의 영도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노동자계급 외의 여타의 계급은 예측독점자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 자본가계급 일반을 부정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과는 구별된다.

그들이 당면 민족민주혁명에 철저히하려면 노동자계급의 영도력 하에 놓여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뿌리부르주아와 자신을 뒤섞어

농음으로써가 아니라, 독자성을 건지함으로써, 민중 일반의 혁명투쟁을 올바르게 이끌게 된다.

노동자계급은 비록 그들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미제와 반동권력의 폭압에 대항하여 투쟁에 떨쳐나서는 민중의 민족민주투쟁을 지지한다.

농민계급의 뿌리부르주아적 지위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낡아빠진 억압과 착취질서에 저항하는 그들의 진보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전 민중이 미·일제국주의와 연속독점자본의 군사 파쇼권력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이 때, 노동자계급은 제반 반정부 분파를 지원하고 그들을 보다 철저히 싸우도록 고취함으로써, 민주투쟁의 전위투사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실행함과 아울러,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전면적 계급투쟁의 발전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남한 민족민주혁명에서 첫번째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전 민중을 이끌고 현 파쇼권력 타도와 미·일제국주의 축출을 달성하는 것임을 앞에서도 누차 강조해 왔거니와, 그 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체의 반동적 억압질서를 분쇄하고 전 민중에게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에게 폭압적 국가기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연속적 축적구조를 끝장내고 자주적 경제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이 최대한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을 주된 계획으로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민족민주혁명상의 기본과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중에게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고, 제국주의의 지배를 종식시켜 정치적·경제적 민족해방을 완성하며, 노동자계급의 발전을 질곡하는 제반 장애물을 일소하는 것을 요구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전위가 당면의 임무로서 곧바로 사회주의적 개조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지 않는 이유는, 위와 같은 민족민주혁명을 통할 때에야 전면적 사회주의혁명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역사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조건이 변화하고, 세계 사회주의권과의 관련 하에 사회주의혁명의 실현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시점에 이르면, 곧바로 사회주의혁명의 성취로 나아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민족민주혁명을 수행할 주체는 일관된 민주혁명의 전위투사인 노동자계급과 그 지도를 받는 민중세력이다.

이들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지배권력인 반동군사파쇼권력의 군대, 경찰, 감옥 등의 폭력기구에 대항하는 전쟁에 나서야 한다.

지배계급의 국가기구를 분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하기 위해서 민중은 무장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산업전선에서 획득하고 있는 단결력을 주축으로 하여, 농민과 도시의 반(半)프롤레타리아와 뿌리부르주아까지 자발적으로 결집한 무장대오가 형성될 때, 한중도 안되는 억압대오는 추풍낙엽처럼 분쇄될 것이다.

민중의 무장봉기가 각 지역에서 승리하고, 그 대표자가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할 때, 민족민주혁명의 제 과제는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다. 임시혁명정부는 혁명을 무위로 돌리려는 반동비지의 집요한 반혁명기도를 분쇄하고 민주주의 연방 민주공화국 건설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이 절을 끝내기로 하자.

우리는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한의 통일은 민족민주혁명상의 과제임을 다른 문건에서 밝힌 바 있고 그 가장 현실적인 형태는 연방제 통일임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도 남한의 민족민주혁명의 과정에서 탄생될 임시혁명정부가 민주주의 연방 민주공화국이라는 당면 혁명의 강령을 실현시킬 임무를 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과연 민족통일이 남한의 민족민주혁명의 도상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통일이 갖고 있는 우리 혁명상의 의의는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 이상의 논지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남한의 민족민주혁명 시기에 민족통일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검토해보자. 주지하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한의 분단은 1945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 이후 사회주의권의 확대에 두려움을 느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점령정책과 반동적 부르주아의 지배로 인하여 고착화되었다.

그 이후 40여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의 길로 진전해간 반면, 남한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질서가 정착되기에 이르기까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한의 사회구성체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다. 생산력 수준, 생산관계의 성격, 그리고 국가권력의 성격도 완전히 상이하다.

그러므로 남한사회가 사회주의화 되기 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만약 민족해방운동이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진행되면서 갖게되는 진보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통일문제는 당면 혁명에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민족민주혁명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통일의 문제는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던 시기의 민족운동은 부르주아가 지도하는 부르주아민족운동의 한 구성부분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하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이제 오직 사회주의와 동맹함으로써만, 그 승리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족해방운동은 이제 사회주의혁명의 필수적인 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사회주의진영과 국제프롤레타리아운동 및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운동세력의 반제전선으로의 합류·결속은 역사의 필연적 추세이다. 이러한 세 혁명세력들의 결속과 강화는 제국주의를 약화시키고 타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현 정세와 우리의 긴급한 임무' 평가」

남한의 프롤레타리아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미·일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와 반동적 군사파쇼에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미·일제국주의와 남한의 반동부르주아의 파쇼권력에 의하여 정치·경제·군사 등 제 측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프롤레타리아와 남한의 전 민중은 단일한 반제공동전선에 서게 된다. 남한의 프롤레타리아만이 아니라 농민 등의 뼈대부르주아까지도 반제투쟁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데 공동된 이해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즉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단일한 전선 내에서 싸울 수 있고, 또 싸워야만 한다는 점에서 반제공동전선의 구축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그 동맹의 수준은 갖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

단순한 연대의식의 표명이나 상호원조조약 체결에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한의 전 민중이 일관되게 통일을 향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반제공동전선의 수준을 통일로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유력한 토대이다.

남한의 프롤레타리아와 민중이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천년간 단일민족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아직도 민족적 동질성이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돌아가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들, 혈육간의 상봉이 분단의 철책으로 인해 가로막힌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분단을 결코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격심한 고통은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지배와 반동부르주아의 착취와 수탈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남한의 민중에 있어서 통일은 곧 또다른 의미의 해방으로서 간절한 소망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미·일제국주의와 군사파쇼를 몰아내고자 하는 민중들은 필연적으로 통일을 바란다. 반대로 대다수 민중을 억압·착취함으로써 존속하는 반동부르주아와 제국주의는 분단질서를 고착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정적 지배를 보장받고자 한다. 신식민지사회인 남한 민중의 민족해방투쟁이 진보적인 것처럼 민족통일과 민족해방과 노동자계급민주주의는 남한혁명에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세 측면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한의 토대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남한 전 민중의 투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중의 반제투쟁과 동일선상에서 서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을 지향하게 되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민족민주혁명을 통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토대와 관련 없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사회이고 남한이 NDR을 추진 중인 사회이기 때문에 내정과 외교 일체를 단일한 행정체제로 편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와 같이 완벽한 통일이 가능해지려면 남한의 자본주의 자체가 폐절되고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 때문에 NDR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은 연방제통일인 것이다.

남북통일국가인 민주주의 연방 민중공화국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대표되고, 대내적으로 지역적 자치를 실행하는 권력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연방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의 완전한 통일과 자주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는 일은 NDR을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성장·전화시켜 나감으로써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당면 NDR에서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야 하며, 또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을 단호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민족통일이라는 NDR상의 과제는 파쇼타도와 미제축출이라는 임무와 별개의 것일 수 없다.

오히려 파쇼타도와 미제국주의 축출이라는 임무에 헌신함으로써만 민족통일이 달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로까지 나아가는 혁명의 경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두기로 하자. 우리들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파쇼타도·미제축출·임시혁명정부·제헌의회·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이라는 혁명의 경로와 관련지어,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의 위상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남한에서 먼저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 이 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통일을 추진하여 '민주주의 연방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남한에서 혁명이 성공한 후, 그 혁명의 지도기관인 임시혁명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의 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할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연방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게 될 것인가라는 두가지의 경로가 예상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는 무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임시혁명정부가 수행할 최소강령(당면목표)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진영은 임시혁명정부가 단순히 남한에 지역적 한계를 지닌 민주주의 연방 민중공화국 건설로 밀고 나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설사 당시의 조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남한에서 먼저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게 된다 할지라도 강령적 목표로서 민주주의 연방 민중공화국의 건설이라는 요구는 전적으로 옳바르고 정당할 것이다.

그리고 NDR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완수하지 못하는 최소강령적 요구들은, SR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 내에서 마무리짓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을 프롤레타리아의 전위가 의식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은 우리 혁명을 건설한 사회주의혁명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커다란 힘을 부여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NDR에서 프롤레타리아에게 모니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역량이 남한 내의 반혁명세력의 준동을 막는 데 커다란 동맹군의 역할을 할 것이며, 통일 이후 계속될 사회주의혁명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프롤레타리아의 전위임을 자처하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동맹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세우지 못한 활동가가 있다면 한시 바빠 그와 같은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설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남전략전술에 있어서,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그들과 우리의 동맹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입장과는 사상투쟁을 벌이되 혁명사업을 위하여 힘을 합치겠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진정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입장이어야 한다. 우리가 건설한 남한 프롤레타리아계급 전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로동당과 동맹관계에 설 것이다. 그리고 사상에 있어서 일치하게 되고, 또 임무에 있어서 공통될 때 민족적 단일당으로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다룬 민족민주혁명의 기본적 과제는 일반 민주주의적 요구와 노동자를 위한 요구, 또 농민을 위한 요구로서 강령에 표현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강령의 제 요구에 대한 고찰은 하지 않겠다. 그것은 따로 강령해설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일반적 내용들이 세부적인 강령의 확정을 위한 기본적 견해로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